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본당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녹)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3년 11월 19일 (제2057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8am~5pm) 토/일(8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한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5,1-6

복음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5,14-30

영성체송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성가]	8시	입당 337	봉헌 340	성체 187	파견 77		
	11시	입당 337	봉헌 특송	성체 특송	파견 77		
연중 제33주일	11월 19일(일)		11월 21일(화)	11월 22일(수)	11월 23일(목)	11월 24일(금)	11월 2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 토마스	김미숙 말가리다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성령 기도회
독서	정미경 말가리다	이기만 베드로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명련 파트리샤	이명란 아네스	성령 기도회
	정기환 레안델	이진의 안젤라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11월 위령성월

- 주일 8시/11시 미사: 매 미사 20분 전(창 2양식)
- 평일미사 매 10분전, 2양식(짧은연도)로 낭독연도 있습니다.

■ 오늘 교중미사는 예수회 박수영테오도르 신부님이 집전해주십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11월 25일(토) 11시 미사 : 성령기도회
- 미사 중에 병자성유도유예식이 있습니다.

■ 제4차 시노드

- 일시 : 11월 25일(토) 오후 1시
- 대상 : 본당 제단체장

■ 특별 연도

-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일시 : 11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 연도는 1양식으로 바칩니다(성인호칭기도는 생략).
- 당일 점심은 염소탕입니다.

■ 성경 경시대회

- 일시 : 11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 대회방식 : 경시대회 범위는 신약성경(주보 3면 내용 포함)
 - 1) 전 신자 OX 게임
 - 2) 구역대항 : 각 구역에서 대표자 3명 선출

■ 영정 사진 촬영 안내

- 영정 사진을 만들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촬영
- 촬영일: 19(일), 26(일) 미사 후 성당 안

■ 추수감사절 미사 및 안내

- 추수감사절 미사 :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성당
- 추수감사절 식사 : 당일 미사후 친교실
- 추수감사절 음식 나눔

문의 : 이선미 에스더(오일공 구일구 육오육칠)

*추수감사절 주간 아침미사(수목금)는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레지오 연차총친목회

- 일시 : 12월 10일(일), 밥나눔 후, 친교실
- 대상 : 레지오 단원들과 협조단원들

■ 교중미사 전례성가

- 오늘 교중미사 전례성가는 어울림 성가팀에서 준비했습니다.

■ 성경 통독

- 11월 바오로 서간(읽기분량 : 로마서 4.1-7,25)

■ 밥나눔 안내

- 실버구역 황율리안나 자매님이 손녀 결혼식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본당 전 신자 분에게 점심을 대접하십니다.
- 밥나눔 티켓 6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 - 삼칠오 - 오일사칠)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이안 Franks,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올리엠타

■ 모임 및 회의

- 오클랜드 구역 : 11/19(일), 12:30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트구역 : 11/19(일) 12:30 교육관 107호
- 프리몬트 구역 : 11/19(일) 12:30 교육관 201호
- 리치몬드/버클리구역 : 11/19(일) 12:30 대건관 소망방
- 알라메다 구역 : 11/19(일) 오후 5:30 BB Bowl
- 캐스트로밸리구역 : 12/02(토) 오후 5시 이범준 요셉택

■ 2차 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 Campaing for Human Development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탁구대회 및 젠가대회를 기획해주신 평협회장 최대연다니엘 형제님과 봉사해 주신 분들, 기부금과 물품기증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세실리아(11/22): 박미숙, 김민지, 김근원, 김정자, 황선희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로마서 (상): 의화, 예수님 피를 통한 올바른 관계의 회복

기원후 1세기 로마에는 유대인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5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으로 미뤄 적어도 40년 즈음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로마교회는 어느 사도나 외부 선교사의 직접적 복음 선포 없이 자생한 교회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평생에 한번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이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신자들과 접촉하며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와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를 자신의 신학적 유언을 담은 서간으로 활용했다. 바오로는 여러 서간을 남겼지만, 특히 로마서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학 논문과도 같다. 바오로는 그에게 제기된 질문들에 답변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옹호하며 서간을 써내려갔다.

바오로가 로마서에 언급한 주제는 크게 △ 의화론(義化論) △ 이스라엘의 운명 △ 국가와 권력의 관계 △ 교회의 일치와 평화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의화론에 대해 바오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마 1,16)는 선언으로 답했다. 여기서 복음은 하느님 말씀, 특히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1,16)이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다. 믿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기쁨으로 다가오고 신자를 회개로 인도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준다.

바오로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1,20)라고 말했다.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며, 하느님 자리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도의 자연주의 신학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비록 진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이 주신 자연 이성으로 사물을 관찰하면 이를 만든 창조주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느님 율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커다란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사도는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남들을 판단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1, 22-24).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5,20)는 말과 같이 하느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는다고 말했다. 그 길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느님의 의로움'(3,21)이다. 율법과 무관한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3,23-25).

사도는 이 대목을 통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흔히 예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를 풀기 위해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사도는 예수의 피를 봉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벗기고 정결케 함으로써 하느님과 다시금 본래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죄로 왜곡됐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가 당신의 피로써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켰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올바른 관계'는 의화(justification)로, 의롭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로 이뤄진 속죄와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 가톨릭교회는 의화를 단순한 죄의 사함을 넘어 인간의 내면이 성화되고 쇄신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죄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느님 자녀로서 불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차 성화돼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신문, 2013년 2월 24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영어미사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26명	51명	159명	236명

주일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영어미사	8시 미사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자(11-12), 김영희(12), 김영길(11), 김관수(6-12), 신우현(9-10), 정순자(11-12), 이옥경(10), 임석호(9-10), 김복희(11-12), 박부기(10-12)					홍승천		이옥경, 최용일	신우현, 이옥경, 김복희	안나, 요아킴회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11/19(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1/19(일)	연 한서연 수산나	양수산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 /아네스	연 홍모니카		정분다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홍모니카		정분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황문환 마르코		가족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황문환 마르코		이정연 골롬바
	연 김형준 시몬	이정연 골롬바	연 황보파 쟈마		임세트리다
	연 이호순 마리아	이예스터	연 크리스토퍼 오쿠모토		신 미카엘라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네스가족	생 조덕행 에드몬드		강선진 실비아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Grace Kang		황정숙 말피나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생 권영현 바실리오		이요셉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김광석 베드로		황정숙 말피나
	연 옥재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김영희 엘리사벳		황정숙 말피나
	연 김마르코	가족	생 박선정 베로니카		임유지 비비안나
	연 부흥신 마티아	가족	생 박정연 헬렌		황정숙 말피나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생 손한석 가브리엘		익명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생 심연자 데레사		황정숙 말피나
	연 최순일 요셉	강순배 수산나	생 이상주 카타리나		조레지나
	연 Jeannette Barnes	차아름 루시아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강성순 아브라함	강선진 실비아	생 황정숙 말피나		김영희 엘리사벳
	연 강성순 아브라함	조레지나	생 황혜정 데레사		황정숙 말피나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양수산나	생 마리에크리스티나 수녀님		이베로니카
	연 김승우 닷	가족			
	연 김영택 다니엘	김영희 엘리사벳	11/21(화)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요한	정분다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요한	정분다		연 송희성 마티아	송베로니카
	연 김재성 제이슨	황정숙 말피나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안토니오
	연 김형태	김영희 엘리사벳		연 크리스토퍼 오쿠모토	신 미카엘라
	연 박옥철	가족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박추웅 안드레아	황정숙 말피나	11/22(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백효정 아네스	조레지나		연 김성현 요한	이베로니카
	연 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크리스토퍼 오쿠모토	신 미카엘라
	연 송희성 마티아	강실비아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송희성 마티아	조레지나	11/23(목)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신크리스티나 부모/형제	신크리스티나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에디황 프란치스코	가족		연 크리스토퍼 오쿠모토	신 미카엘라
	연 연옥 영혼을 위하여	순교자들의 모후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연옥 영혼을 위하여	사랑 하울 어머니			
	연 연옥 영혼을 위하여	구세주의 어머니	11/24(금)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윤기창 레오	윤루카/루시아		연 최영자 엘리사벳	최명주 쟈마
	연 이재우 요셉	윤루카/루시아		연 크리스토퍼 오쿠모토	신 미카엘라
	연 이정 마리아	이영아 아나타시아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임봉윤	임세트리다	11/25(토)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정요셉	정베드로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연 정요셉	정베드로		연 전아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텔/스텔라
	연 조남제 토마스아퀴나스	양수산나		연 크리스토퍼 오쿠모토	신 미카엘라
	연 최영자 엘리사벳	최명주 쟈마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세종조질·통증조질·세정간병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p>	<p>김영선 알젠틀라 & 폴킴 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418-0358/847-5837 DRE #01036902 #01851957 Akim.properti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	---